

그림은 투쟁이었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기대용 고향서 첫 전시회...22일~6월 14일 미테-우그로

선천적 뇌성마비·청각 장애 앓아 독학으로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홍대 대학원 마치고 수도권 전시회

서양화가 기대용(42)씨에게 그림은 자신을 표현하는 돌파구이자 삶의 투쟁과도 같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그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표현하는 분출구이기 때문이다.

기씨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연다. 22일부터 오는 6월14일까지 대인시장 내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에서 열리는 기씨의 세 번째 개인전 주제는 '구동존이'(求同存異)다.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전시 주제처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은 것들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이번 전시도 그런 노력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리다.

기씨는 선천적으로 뇌성마비와 함께 청각 장애를 앓았다. 몸의 근육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다. 그때 그림을 만났다.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림을 그리

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그림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사주셨거든요. 남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 수가 없었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림이 친구가 된 것이지요. 그때 주변에서 잘 그린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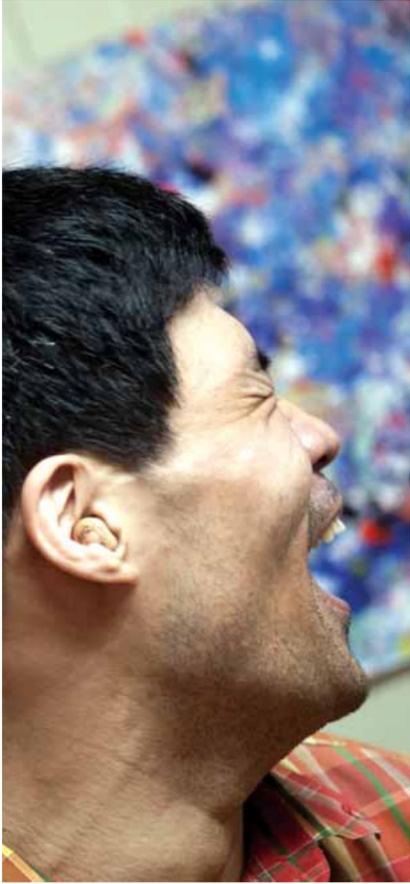
기씨는 고등학교 이전까지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에서 석고 데생 등을 배운 게 전부다. 하지만 나름 작품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는 대한민국미

술대전에서 입선하면서 대학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오견구 선생의 권유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만에 호남대 미술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을 마치고 나니 배움에 대한 욕구가 더 커졌고, 홍익대 대학원까지 마쳤다. 서울에서 두 차례 개인전을 가졌지만 결국 신체적 한계 탓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서울과 경기에서 열린 단체전에는 여러 차례 참여를 했지만 광주에서는 좀처럼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작품을 자주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 그



기대용



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신체적 한계 탓에 구상 작업이 힘들었던 그는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한계가 없는 비구상회화를 하면서 그는 신체적 자유를 함께 얻었다. 손이 아닌 마음으로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 과정은 더디지만 치열하다. 똑바로 설 수조차 없는 그는 캔버스 앞에서 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한다. 붓으로 색을 입히고, 또 손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반복한다. 두텁게 쌓아가는 물감의 두께만큼 그가 생각했던 것들이 구체화된다. 그 안에 수많은 슬픔이 점점이 박히기도 하고, 슬픔 위에 새로운 희망을 눌러 담기도 한다. 또 밝고, 어두운 화폭에 '생명'을 수놓는다. 그 과정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기에 더듬거리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해온 그의 삶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평범하지만, 부족하지만 저만의 길을 걷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품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저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씨의 전시는 일반 전시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틀에 맞추는 대신 작가의 시각에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작품이 불규칙적으로 설치된다. 또 갤러리 입구 계단부터 깔려있는 자갈들로 인해 관람객들은 불편을 겪게 된다. 작가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겪을 수 있다. 문의 010-6680-983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최성희 원예힐링 작품전

광주여성재단, 27일 무료 강습도



식물을 가꾸며 힐링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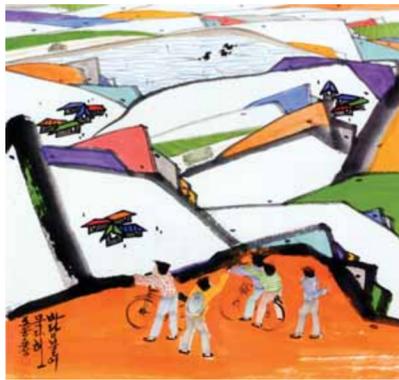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북카페에서 지역여성 작가들의 솜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작은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는 최성희 작가의 '원예힐링 작품전'이 열린다. 다육식물, 공기정화식물 등을 이용한 전시로 원예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시민체험프로그램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북카페에서 최성희 작가의 지도로 무료 진행된다. 참가신청서는 22일까지 홈페이지(www.gjwf.or.kr) 및 전화로 접수받는다. 전시는 오는 6월23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670-0534. /김미은기자 mekim@

기품있고 세련된 남도 풍경

은암미술관 21~27일 박도승展



'타'

남도의 고즈넉한 정경이 먹고 간결한 필치로 화폭에 담겼다. 기품이 넘치는 작품에 따뜻하면서도 화려한 색이 더해져 현대적인 세련미가 함께 흐른다. 부연되는 사람과 주

택 등은 남도풍광의 아가지기하면서도 해학적인 맛을 강조한다.

문인화가 도봉 박도승 선생이 21일부터 27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진도 출생인 박도승 선생은 최연소 연진회 회원으로 금봉 박행보 선생의 사사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수묵세계에 입문했다.

작가는 파격적인 화면구성과 화려한 채색, 간결하면서도 정제된 필 등으로 남도의 자연과 풍광을 재구성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시각적 화려함과 현대적 기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화단의 평가다.

그는 남도의 포근한 산세를 직선으로 이으면서도 부드럽게 표현한다. 또 과감한 붓의 움직임으로 잡아낸 수목이 화폭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무게감을 더한다. 소박하게 표현된 마을의 풍경은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고향 마을을 거니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순박하기만 하다.

무등미술대전 대상 수상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시 개막식은 21일 오후 6시30분이다. 문의 062-222-4855. /김경민기자 kki@

애들아 놀자! 아시아스포츠 놀이하머

亞문화개발원, 23일 어린이문화원서 U대회 프로 시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각 국의 다양한 놀이문화를 체험하는 '아시아 놀이터'로 변모한다.

아시아문화개발원(원장 최종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오후 6시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옥외놀이터 등에서 아시아스포츠놀이체험마당 '하우 펀(How Fun)'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에 운영될 프로그램의 사전 시연행사로 마련된 행사다.

이번 놀이터에서는 러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볼링을 응용한 던지기 놀이 등 지역 예술가와 어린이문화원이 함께 개발한 30여종의 아시아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먼저 '던져볼까' 마당에서는 러시아 볼링 '고로드키', 말레이시아 볼링 '볼라세통', 일본 고리던지기 '와나게' 등을 응용한 다양한 던지기 놀이 등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함께 놀까' 마당에서는 인도 숨은보물찾기 놀이 '키치키치탐볼람' 등 16개 놀이가 시연

된다. 또 '만들어 볼까' 마당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함께 페트병을 재활용한 꽃 만들기, 대나무 피리·할 만들기 등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일정과 자세한 정보는 아시아문화개발원 홈페이지(www.iacd.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410-371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맛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전, 동종산대교수

진료문의 (062)227-7575